

262장 - 날 구원하신 예수님

2018년 3월 16일(금)

- (1)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 (2)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 (3)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 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네
- (4)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 (5)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대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310장 - 아 하나님의 은혜로

-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4) 주 언제 강림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월 17일(토) 기도 담당 : 문석용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박세훈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262장 다 같 이
기 도 김경원 집사
성 경 봉 독 창 4:16~26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이상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10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창세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 요 일 | 본 문 | 제 목 |
|-----------|-----------|------------------|
| 3월 13일(화) | 창 4:1~8 | 가인은 우리 안에 있다 |
| 3월 14일(수) | 창 4:9~10 |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
| 3월 15일(목) | 창 4:11~15 | 우리는 가인의 후손인가? |
| 3월 16일(금) | 창 4:16~26 |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

※ 이른아침예배 시 성경책을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3월 16일(금)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와 생명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영향력 속에서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고 때론 두려움과 분노에 쉽게 휩싸이는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주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악한 영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쉽게 엎드러지며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며 은혜로 회복의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 사랑과 그 신실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맛보아 아는 자처럼 살아가며 응답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한국 교회가 주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새롭게 깨달아가게 하옵소서. 선과 악의 실재를 드러내는 진리의 빛을 비추며 스스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를 긴 역사 가운데 이끄신 손길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담임목사님과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러 그 뜻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새 성전 건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성전을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크게 하시고, 그 중심에 거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강권하셔서 수많은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중에도 한반도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평화와 소망의 날이 이어지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